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의 효시로 본 백정신분 해방운동의 복합적 요인에 대한 연구

설기환¹, 박경란^{2*}, 박명혜³, 유석호⁴

¹Ik 인베스트먼트, ²단국대학교 교육사회학과, ³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⁴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Various Factors of Liberation of Baekjeong identity by the Present of Multicultural Phenomenon in Korea

Sul Gee-Hwan¹, Park Kyung-Ran^{2*}, Park Myung-Hea³, Ryu Seuk-Ho⁴

¹Ik Investment Ltd.,

²Dept. of Educational sociology, Dankook University

³Dept. of Society & Welfare, Chungwoon University

⁴Dept. of Gam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백정이라고 하면 조선이후의 하천민인 도살업을 하는 신분의 사람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백정이란 호칭은 일반농민의 한 신분을 칭하였고 도살업의 신분은 화척, 재척 등으로 호칭된 북방에서 유입된 이민족으로 조선초기에 제민화정책에 따라 신백정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가 조선후기에 백정으로 불리었다. 정책의 실패로 농민 중심이던 일반인이 저급하게 여기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천대와 멸시가운데서 살았던 다문화의 대 선배이다. 이들 백정이 어떻게 그 신분의 굴레를 벗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흐름을 살펴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과거의 현상이 연구의 기반이 되므로 역사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백정해방운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시점의 다문화에 관한 관점은 정부의 관련기관의 통계를 유의미하게 해석하여 조망하였다. 연구 결과, 백정해방은 매우 다양한 시대적 사회적 원인과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의 현상과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 요인분석에 더해서 해방과정을 좀 더 연구한다면 정책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백정, 다문화, 다문화정책, 형평사, 제민화정책

Abstract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Baekjeong means Butcher after the Joseon Dynasty. In the Goryeo Dynasty, the title of "Baekjeong" was named as a general farmer's name, "Hwacheok" and "Jaechek" from the north, but it changed its name to Shin Baekjeong by nationalization polic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y were multicultural Ancestors who worked for jobs which people desp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trends of how these were stripped of their identity and to present a direction for deciding on the policy of multiculturalism which is the subject of our society today. Based on the researches of historical researchers, the study examines the multicultural dynamics of old period and observes the present phenomenon by interpreting the statistics of the related institutions of the government. We realized that the reason for the liberation of the Baekjeong has a various causes and its causes are similar to the phenomenon of today 's multicultural society, so that the depth research on each factor will be added to form a desirable policy base for multiculturalism in our country.

Key Words : Baekjeong(butcher), Multi-culture, Multicultural Policy, Hyungpyungsa, Nationalization policy in Chosun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cademic research fund of Chungwoon University in 2016.

*Corresponding Author : Kyung-Ran Park(pkr201533@gmail.com)

Received December 12, 2017

Revised January 22,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1.1.1 연구배경

다문화(多-文化)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며,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영어: multiculturalism)는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생각이나 정책을 말한다. 다문화주의의 이념은 197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말 이후에 다문화 가구 인구나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다문화 현상은 가구조사와 인구 및 외국인 동태조사에서 그 맥을 짚어 볼 수 있다.

다문화가구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귀화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이혼 가정을 말하는데 2015년 실태조사결과, 278,036 가구로 추정되어 국내 총가구 17,339,422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2년 조사결과보다 7.5% 증가하였다 [1]. 이런 추이를 감안한 연구¹⁾에 의하면 2020년에는 우리인구의 5.5% 수준인 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출입국관리에서 파악된 외국인 체류자 수자도 Table 1과 같이 2007년 1백 만 명을 초과하였고 매년 거의 10만 명이 증가하여 1백 4십여만 명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3%이상의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셈이다 [2].

Table 1. Status of foreign resident (unit:thousand)

| year | 1988 | 2004 | 2008 | 2012 |
|------------------|------|------|-------|-------|
| population | 308 | 750 | 1,158 | 1,445 |
| rate of increase | - | 143% | 54% | 25% |

보통 다문화 정책은 인권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문화 정책의 진짜 목적은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자국 내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시키는 것이다. 그로써 자국민 노동자와 제한된 숫자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심화시켜 임금 하락을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산업연수가 그 포문이 되었고 정

부가 나서서 다문화와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그 결실도 미미할 뿐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더욱이 우리나라는 혈통 중심의 국민주권 개념을 고수하는 기존 문화에 익숙하여 다문화에 대한 의식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 훨씬 부족하다.

그런데, 최근의 역사연구에서 백정신분의 사람들이 유목민으로 유입된 다문화의 효시로 보는 시각이 생겨서 이에 대한 사료적 연구는 더 깊어지고 있으나 사회문화적으로 그들의 삶과 신분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1.2 연구목적

이근회는 백정을 한반도 땅에 다가와 우리와 함께 피를 나누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 우리에게 꽤 낯설고 한편으로는 매우 친근한 집단인데 그들이 억압받고 소외당한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다문화라고 명명한 새로운 구성원들의 먼 선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본론에서 살펴보겠지만 백정들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과는 동떨어진 취급을 받으면서도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하지만 기층민이 기피하는 직업에 종사하였고, 한반도에 공존하는 삶을 유지해 오다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동화된 사례를 남긴 다문화 선조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입된 다문화화도 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생하고 있는데 종사하는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자 29.0%, 서비스종사자 18.7%로 우리나라 전체의 단순노무직 13.4%, 서비스 10.5%와 비교하면 단순노무나 서비스 등의 일반 서민이 기피하는 저급한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현상이어서 백정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서양의 다문화정책과 우리나라의 다문화에 관한 정책적 현실이 다르지 않고 수 백년 전의 백정들에 대한 정책과 삶도 역사학자들의 주장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급격한 저출산 현상의 우리에게 현실적 문제로 다가온 다문화의 정책적 방향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다가 하나로 동화되었고 백정이라는 그 신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하여 미래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1) 설동훈외(2009)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 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에 의하면 2020년에는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 수가 총 인구의 5.5% 수준인 27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나 문화상대주의 등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회의 특정 상태나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인 내용을 잘 살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데 주안하기에 다문화주의와 정책에서 제시된 용광로 이론이나 셀러드블²⁾과 같은 목적성 정책방향을 찾는 연구와는 다르게 사회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분명히 사회현상을 다루는 연구이지만 백정이라는 신분이 존재하던 고려와 조선시대의 현상으로서 그 실제적인 증거나 설문 등이 불가능하고 역사적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대의 문제를 풀기위한 관점을 찾아내는 역사연구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 등장하는 다문화에 대한 내용들은 관련 국가기관의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이미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재해석하는 차원의 분석을 가함으로써 구체성이 있는 접점을 더하여 연구하고, 추후에 이 논문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인식을 조사하는 추가 연구 시에는 설문과 통계적 분석을 곁들여서 연구해 나갈 것이다

2. 본론

2.1 백정의 호칭과 신분 변화의 고찰

2.1.1 백정호칭의 역사적 변화

김남옥은 왜 고려의 양인들은 백정이라고 불렀나? 라는 제하에서 백정하면 도살업 종사자와 조선 명종 때의 임격정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개나 소의 도살이나 유기, 피혁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칭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라고 주장한다. 이전 고려 시대에는 특별한 직역이 없는 계층이 백정이었으며, 대대수 농민들이 여기에 포함되었으므로 백정농민이라고도 하였다【5】.

즉, 고려시대의 백정은 조선시대의 백정과 다르게 일반평민 중에서 정역이 없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칭한 것이다. 이런 백정의 의미는 정(丁)을 사람으로 보느냐 토지로 보느냐는 상이한 주장이 있지만 백(白)을 없다는 의

미로 해석하여 일정한 역이 없는 농민백성을 총칭하는 것이라는 데는 일치하는 견해를 제시 한다【6】.

조선 초기에 백정들을 농민으로 전환하여 역을 부담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고려시대에 재인(才人), 화척(禾尺), 수척(水尺), 양수척(揚水尺)으로 불리던 사람들은 농경에 종사하지 않고 정착하지도 않는 생활이어서 호적에 등록되지도 않아 실태 파악이 어렵고 아울러 조세 부담층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일정한 지역에 정착시키고 평민과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해 세종 5년에 백정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던 것인데 고려시대의 양인에 대한 호칭과 혼돈하지 않기 위해 신백정(新白丁)이라 하여 다른 평민과 구분하다가 조선 말엽에 백정으로 고쳐되었다【7】.

2.1.2 백정신분의 변화와 현상

조선후기 백정이란 호칭이 자리잡혀 근대에 까지 그 신분이 유지되던 백정은 북방에서 유입된 유목민으로 한 반도와 인연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강만길은 백정의 기원을 만주에서 온 이방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유목민은 자신들 고유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면서 농경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활로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색적인 음악과 오락을 제공하였으며 때로는 돈을 벌기위하여 매춘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 생활양식은 토착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으며, 그들 자신도 한 곳에 머물러 생활해야 하는 농경 사회의 풍습에 적응할 수 없었다【8】.

이근희는 호종(胡種)에서 한자 호胡의 쓰임새는 많지 않고, 한반도에 존재했던 재래의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유입된 이종(異種)의 사람과 문물 등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글자인데 우리말에서는 이를 ‘오랑캐’라고 읽는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거란족, 말갈족, 몽골족 등이 유입된 근거를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제시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³⁾

제민화 정책을 펼쳐도 오히려 반발하여 도적이냐 강도의 무리가 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백정의 신분은 우리나라의 격동기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사회변혁과정에서 그 천박한 신분을 벗어내고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백정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그 신분적 계급은 완

2) 미국정부가 내세운 다문화 정책인 용광로이론은 미국인으로서는 하나의 용광로에 모두 융합된 미국을 지향하자는 것이고 아메리카원주민들의 독립움직임에 대한 정책으로 실패하자 모든 인종과 민족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한데 모으는 셀러드블과 같은 나라를 지향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3) 백정, 외면당한 역사의 진실에서 백정을 조선의 이방인으로 서 존경감보다는 멸시, 친근함보다는 배타적인 감성을 받은 사람들로 세밀하게 거란족, 몽골족, 일부의 만주족이 고려에 유입되었다고 봄

전히 사라져 버렸다. 물론, 이런 사회의 변화는 최상위층인 왕족과 귀족도 사라지게 하였지만 이런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다문화 정책 방향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

2.2 백정신분 극복의 밑거름이 된 토양

2.2.1 정책적 영향

사회계층의 분화과정에서 천민 출현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라고 전제하면서 백정과 기생은 보조계층인가 쓸데없는 신분인가를 화두로 던진 박종성은 노예제도의 생성과정을 전쟁 포로와 정치적 반역자에게 부과된 천역, 즉 결코 원치 않았던 역할의 강제 부여가 구체화되고 역사적으로 제도화 된 것이 사회적 최하층민 발생의 계기가 된 셈이라는 일반적 견해를 펼친다. 우리나라의 백정은 조금 다르게 자발적 유입인들이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가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지배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살아왔다고 본다 [9].

이런 백정들에 대해서 조선 초기에 펼친 제민화정책은 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태조 때 배극렴, 조준 등은 조선국가의 국정 과제 22개 항 가운데 재인과 화척 등이 도적이 되어 우마를 제상하지 못하게 하고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경제육전에 등재되어 법령화 되었으며, 성종 대까지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시행되었다 [10].

제민정책은 실패하였으나 강제로 지정된 곳에 모여 살면서 일정한 직업을 세습하고 이름, 의복, 혼인, 교육 등의 삶의 전반에서 제한과 억압은 물론, 멸시와 수탈에 시달리는 삶은 지속 되었다. 그러기에 정책의 역기능이 자신의 신분을 벗어 버리고 싶은 욕망과 도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2.2.2 외부세력에 의한 영향

외부세력에 의한 영향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다룬 정책적인 영향도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는 내부적 요소일 수 있지만 백정들에게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강제적 정책은 큰 외부적 요인일 수 있다.

조선 초기 제민화 정책에 대한 동화의 실패가 곧 일탈의 근거가 된다는 견해나 체제 부적응이 절도와 강도로

이어지는 단서였다는 논리는 과잉도약이다. 실록 기록자들 역시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고려치 않고 소문에 근거해 거의 대부분 백정과 범법자를 동일시하거나 천민을 무죄한으로 순간 내면화해 버리려는 사고의 틀을 쉽게 버리려 들지 않았다는 점은 치명적 한계로 남는다고 지적하면서 실록의 편협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11].

제민화 정책뿐 아니라 정책의 실패를 다른 시야에서 백정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역사기록도 백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외부적 악재였음이 분명하다.

반대로 당시에 선교사들 중에서 이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지배계급이나 정치지도자들에게 이들의 신분제도를 타파하도록 요구한 움직임은 절망적 삶의 끝자락에 있던 백정들에게 엄청난 외부적 영향이었다.

2.2.3 내부의 자기 개혁

19세기 중엽의 한국 사회는 큰 혼란기를 맞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는 지배 탄력성을 잃어갔고 외부적으로는 구미 열강에 의한 이질문명의 도전과 내부적으로는 신분사회체제의 폐지요구가 이어져서 근대 국민국가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 된 셈이다 [12].

1894년 갑오경장 때 개화파 정부의 신분제 폐지의 법적 조치로 최저(social underdog)의 존재인 백정계급에 대한 신분철폐 의안도 존재했지만 차별대우나 수탈은 사실상 완화되거나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진주에서 발발한 형평사운동은 백정세력들의 자기 개혁의 발로임을 그 발지의 내용들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형평사 발기인이 만든 주지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러므로 아등(我等)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건장하며 아등(我等)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期)하는 것이 본사의 주지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여성백정은 남성백정이 도살한 고기를 행상활동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조선시대의 일반 여성들과는 다르게 백정공동체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생계를 담당하는 대등한 위치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을 넘볼 수 있다. 이는 1920년대부터 일어난 형평여성회 활동이 이런 짐작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게 충분하다.

이는 신여성들이 다소 관념적이고 다른 계층의 계몽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 행상을 통해 지득한 지식과 자립능력은 물론,

신분차별의 모순을 느끼는 자각과 저항이 변화를 이끄는 내부 혁신의 힘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13].

2.2.4 사회(산업)환경의 변화

백정은 일반인들이 꺼리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의 독점적 직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도축업, 수육판매업, 유기 제조업 등에 종사하였는데 갑오개혁 이후 이런 직종에 일반인도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유력한 자들이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해 도살장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급기야 1896년에는 법규에 의해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 독점권과 자율성으로 유지되던 백정들의 독점분야에 경쟁이 강화되고 부패 관리와 일체의 수탈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되어 생존에 위협까지 느끼는 삶의 위기가 도래하였기에 돌파구를 찾는 움직임은 당연하다 [14].

2.2.5 사회적 관심의 변화와 지원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물결은 일제의 압제에 대한 새로운 운동을 시작으로 전 사회에 번지게 되었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사회운동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각양각색의 사회단체들이 독립운동을 펼쳤고 집단의 이익대변단체들도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백정들의 신분제 폐지를 앞세운 형평사의 운동은 백정들의 이익대변 단체들과는 다르게 민족적 정진함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당시의 신문들과 다른 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다가 형평사 내에 비밀결사대가 있다는 핑계로 진보적인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온건과 앞잡이를 세워서 1935년 형평운동이 완성된 것으로 대동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급격하게 쇠락하였으나 백정들이 일반 평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형평사운동을 일으켜서 대등하게 인정받은 것은 사실로 남았다 [15].

2.3 백정신분철폐를 통해 본 다문화사회를 향한 담론

2.3.1 포용성을 기반한 패러다임의 변화

백정이 하층민으로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그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우리사회에서도 그 신분이나 직업에 대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선형이 있는 우리가 제2의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계와 이어져 있어서 경제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정책과 문화적 고찰이 선진국의 제도에 대한 모형이나 적당한 변형으로 이루어지거나 모방행정의 경향이 많다 이제는 우리사회에 꼭 맞는 옷으로 입기위한 우리만의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조선의 새로운 정책의 하나인 새 국가 기틀과 변혁을 위한 백정의 제민화 정책이 국민들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참여가 없어서 실패하였고 더 큰 사회문제와 잘 못된 관습을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라는 용어에서부터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단일민족의 허상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다문화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문화는 수 십 년이나 100년 정도만 거슬러 비교하면 전혀 다른 문화적 양상을 가진 새로운 문화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를 단일 민족문화로 인식하고 다른 문화들이 동화되거나 적당히 존립하는 의식과 정책은 결코 세계화와 다문화의 출발점이 아니다. 세월과 사회의 변화가 과정적으로 흐름의 현상을 가져오듯이 인종간, 세대간, 계층간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로서의 인식전환과 정책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2.3.2 지향성과 합의가 있는 다문화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미국이나 서구사회가 경험한 이민과 난민 또는 정복이 기반이 된 다문화와 그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등록 외국인 국적별 현황을 단순화한 것 Table 2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다 [16].

Table 2. Foreign Resident Status

| Country | Total | Korean-Chinese | Chinese | Vietnam | Uzbekistan |
|---------|-----------|----------------|---------|---------|------------|
| Total | 1,163,821 | 313,813 | 213,277 | 148,417 | 45,652 |
| Male | 663,432 | 172,804 | 84,743 | 71,137 | 31,005 |
| Female | 500,389 | 141,009 | 128,534 | 77,280 | 14,647 |

한국계 중국인이 27%, 중국인 18%로 중국인이 45%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인이 15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이고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이 각각 4만 5천명을 초과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는 이 표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어떤 지향성보다는 선진국이나 이미 검증

된 정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 베트남을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로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좀 더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3.3 다문화 주체의 내부적 역량 강화와 변화의 주도

다문화 사회의 가장 큰 장벽이 언어적인 문제이고 각 주체간의 동등성이나 상호성이 있어야 다문화간의 상호 발전과 안정적 정착이나 주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다문화현상을 광의로 바라보면 다음의 Fig.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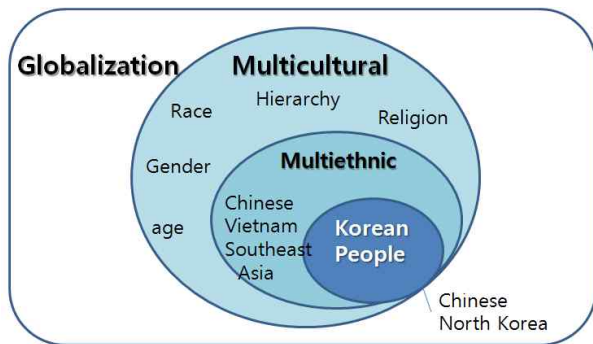


Fig. 1. Korea's multicultural structure

가장 중심의 층에는 같은 문화권으로 인식하는 중국 동포와 새터민으로 일컬어지는 북한 동포가 있다. 이들은 언어적 문제는 쉽게 극복될 수 있으나 현대적 사회변화와 문화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을 이탈하여 이 땅에 정착하려 하는 북한이탈민족의 남한사회의 정착과 안정은 매우 복잡 미묘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죽음을 무릅쓰고 고향을 떠나와서 제3국에서 불법체류의 과정을 거치고 죽음과 마주하는 시간을 넘어서 정착하려 하지만 가족과의 생이별과 불안, 변절과 반목의 딱지, 사회문화적 부적응은 이들과 우리에게 단순한 언어적 소통 너머의 고통이 큰 장벽으로 존재 한다 [17].

다음의 층으로 다민족의 층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이 두터운데 언어적 문화적 이질감이 깊어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는 계층이다.

그 외에 인종, 종교, 연령, 계층, 성별 등의 다양한 문화적 뿌리가 이런 민족적인 문제와 혼합되고 얽힌 다문화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그 계층

별 주체가 각 각 다른 문제를 인식하고 자체적인 극복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2.3.4 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서의 다문화 인식

우리나라는 초고속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길을 걷고 있어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이런 문제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난민이나 침략에 의한 저렴한 노동력으로 하부 층을 이루기 위한 다문화 정책이 그 기본으로 여겨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수한 인력에 의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나라로서 전혀 다른 정책적 접근을 요구한다.

앞에서 선교사들이 백정들을 바라보는 방향이 적당한 수준의 안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백정자신들이 깨우치고 지도자가 되는 인물을 만들어서 그 계층을 스스로가 혁신하고 독려하는 시야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수한 백정에게 일반인도 걸기 어려운 의사와 같은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하고 그 지도층에 의해 견인되는 백정해방운동이 좋은 표본이 된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의 백정해방운동⁴⁾은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라고 극찬을 받는 예시가 되었다. 세계로 눈을 돌려 보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를 비롯하여 쇼팽과 아인슈타인이 적당한 이민자를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었듯이 다문화사회가 단순히 저급한 사회구조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경쟁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이 확고하여야 한다.

3. 결론

백정은 북방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그들의 삶의 강점인 유목과 제살 등의 업종에 종사하면서 한반도에 동화되기를 원했으나 제민화의 정책이 백성들의 호응도 얻지 못하고 백정들의 참여도 이끌어 내지 못하여 그들의 삶을 더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이름, 복장, 거주, 관혼상례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당하는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백정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4) 정준모는 "사무엘 무어선교사의 생애와 선교"에서 마르다 헌틀리(M.Hantley)가 무의 백정해방사역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Turning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평가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결과는 크게 3가지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Fig.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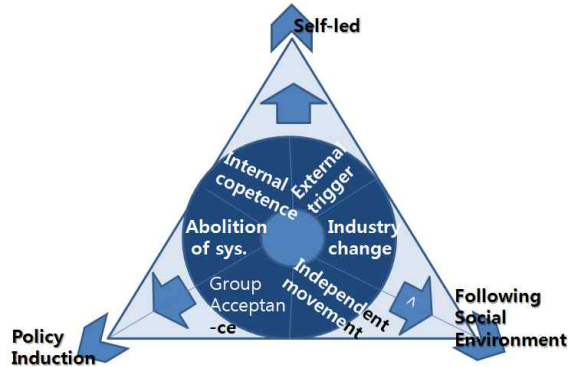


Fig. 2. Overview of the Underdog's Liberation Movement

정책적인 영향의 부분은 앞에서 다룬 것처럼 실정과 괴리되어 실패하고 사회적 차별이 더 심해지기는 하였으나 강제로 한 곳에 거주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이 전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의 의식과 사회지도층의 각성을 얻어내는 선형적 계기는 된 셈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3.1운동을 기점으로 사회운동의 움직임이 활발해 졌는데 이것은 백정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형평사 운동을 자체적으로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고 특히 사회(산업)의 변화는 그들을 위기로 몰아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백정내부의 자발적인 역량에 의한 탈출과 변화가 모색된 부분이다. 물론, 선교사나 사회지도층이 교육과 선도를 주어서 깨달음을 통해 내부역량을 쌓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백정여성들의 폭넓은 사회와의 접촉에 의한 내적역량과 부의 축적에 이은 새로운 도전은 백정들이 사회로 뛰쳐나와 신분제도를 타파하려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동력을 얻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해서는 다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사회를 견인하는 중요한 축으로 다문화의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적인 합의와 다문화 스스로의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 내어 새문화로서의 세계화와 새로운 경쟁력으로서의 다문화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Women's Policy Institute. (2015). *An analysis of the Survey on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9.
- [2] Immigration Policy Center. (2017.11.14). *2017 Status of registered foreigners*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36&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7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 [3] H. K. Lee. (2013). *Baekjeong(buthers), the truth of history*. Seoul : Chaekbat, Preface, 22-43.
- [4] Statistical Office. (2017.11.15). *2015 Household census*.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 [5] O. N. Kim. (2006). The reasons why the people of Koryo was called Bakjeong, *Applied Opening Tomorrow History*. *Westsea Munjip*, 26, 138-145.
- [6] S. Y. Ryu. (2000). *Review of the Bakjeong in Korea dynasty*.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Pusan
- [7] D. R. Kim. (1987). The achievement of the policy of Baekjeong of Chosun Dynasty. *The Study of Industry & Economics*, 21, 73-85.
- [8] M. K. Kang. (1964). The Study of Baekjeong of Chosun Dynasty, *Applied The Study of history*. *Korean Society of sociology*, 18.
- [9] J. S. Park. (2013). *Baekjeong and Kisaeng*.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house, p.83-91.
- [10] J. H. Shin. (2010). The change of modern identity system and the reorganization of daily life. *Oriental Theory* 47, 210-216, Dankuk University Oriental Studies
- [11] J. S. Park. (2003). Social dissatisfaction and politicization of Chosun Butcher. *Social & Science Study*, 16, 194-210, Seowon University Social Science Institute.
- [12] N. P. Choi. (1987). *On social status and the status of Baekjeong in Goryeo period*, Jeonju : Jeonbuk University Industry and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13] N. S. Choi. (1944). *Through Old History*. Seoul : Samjungdang, p.194-196.
- [14] Y. H. Shin. (1976). *Research of Independent Association*. Seoul : Iljogak, p.387.
- [15] Y. C. Lee. (2012). The change and decline of Hyungpyungsa, *Applied The Study of Korean Society for Modern History*. *Korean Modern History Study*, 62, 179-191.
- [16] Ministry of Justice. (2017.11.30) *2014 Status of registered foreign nationals by region*

http://www.immigration.go.kr/doc_html/attach/imm/f2017//20171030297564_1_21.xls.files/WorkBook.html

- [17] J. E. Han & K. Nah. (2017).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 Detecto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27-28.

설 기 환(Sul, Gee Hwan) [정회원]



- 2016년 2월 : 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졸업 (게임학 박사)
- 2013년 4월 ~ 2016년 8월31일 :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 2017년 8월 ~ 현재 : ik Investment 부사장

- 관심분야 : 콘텐츠, 게임정책, 환경혁신
- E-Mail : ghsnow@naver.com

박 경 란(Park, Kyung Ran) [정회원]



- 2010년 2월 ~ 현재 : 자연교육 Lucy 대표
- 2017년 2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육사회학 박사 수료
- 관심분야 : 유아교육, 평생학습, 다문화

- E-Mail : pkr201533@gmail.com

박 명 혜(Park, Myung Hea) [정회원]



- 2009년 8월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사회복지) 박사
- 2013년 4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복지콘텐츠, 복지정책
- E-Mail : womanpmh@chungwoon.ac.kr

유 석 호(Ryu, Seuc Ho) [정회원]



- 1997년 2월 : 뉴욕공대 커뮤니케이션 아트졸업 공학석사
- 2003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게임디자인 멀티미디어

- E-Mail : seanryu@kongju.ac.kr